

외신이 본 한국

# 통일과 민주화의 불가사의

구로다가쓰히로(黒田勝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한국** 사회를 관찰하노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이다. 남북한이 한결같이 '통일' '통일' 하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통일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단체와 마스크 등이 남북 교류를 한다고 북한에 자주 드나든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남북통일을 향한 한걸음이 되기 위해'(南) 라는가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납시다'(北) 라는 말들이 오고간다. 그러나 통일 된 국가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를테면 보편 타당한 민주국가의 연장선에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김정일장군님'을 숭배해 마지않는 현재의 북한 독재체제를 상상케 하는 나라이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양국화된 서로 다른 남과 북이 남북교류 현장에서는 미소를 주고 받으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것일까.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하나의 해답이 나왔다. 지난 8월 대구에서 열린 U대회에 북한이 파견한 이른바 '미녀 응원단'이 보여준 하나의 해프닝이 그것이다. 비오는 날 가로수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그녀들은 울부짖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유인즉 현수막에 남북정상회담(2000.6)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사진이 인쇄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장군님의 사진을 비를 맞게 해서 되겠는가!” “오... 장군님께서 비를 맞으시다니...”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보고 ‘우리는 하나’ ‘같은 민족’이라고 떠들었던 한국국민들도 놀랐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 조국’의 모습이란 저런 것이었던가. 한국 국민들에게는 오랜만에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재료가 된 것 같다.

### 어떤 방식의 통일인지는 논하지 않아

그런데도 질리지도 않는지 한국 TV방송들은 한국의 재벌 현대그룹이 남북교류사업이라 하여 평양에다 지어 바친 체육관 준공식에 초대받아서는 ‘하루 빨리 통일합시다!’라는 U대회 때의 미녀응원단의 구호를 방영하고서는 여전히 ‘남북통일’에의 확실한 한 걸음이 되었다’라는 등의 방송을 해내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 돌아간 미녀응원단은 김정일 장군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충성심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까 아니면 ‘너무 했다’라고 꾸지람을 들었을까. 틀림없이 칭찬을 받았겠지만 코웃음 치는 한국 여론을 참고로 향후 대남전술에 약간의 수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한국의 이른바 민주화세력들이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이른바 민주화세력들은 한국의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힘차게 ‘독재 타도’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격렬하게 투쟁해왔지만 북한의 군사독재체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같은 민주화 투사였던 김영삼 전대통령은 예외).

이 불가사의(不可思議) 수수께끼도 최근 하나의 답이 나왔다.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원 후보위원으로써 ‘거물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송두율(宋斗律)사건’이 그것이다.

재독학자 송두율(59)씨는 1970년대부터 한국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온 이른바 ‘제외민주화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당국이나 보수단체에서는 송두율씨의 친북적인 언행 등을 의심

하여 귀국을 거부해 왔다. 그런데 혁신계의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번에 송두율씨의 귀국이 허가 됐다. 송씨가 민주화운동에 공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북한 민주화에 침묵하는 한국 민주화 세력

그러나 30년 이상이나 비밀리에 송두율씨를 추적해온 정보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여 방대한 추적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다.

조선노동당 입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의 지위, 노동신문 일면을 톱으로 장식한 김일성 주석과의 기념사진과 김일성 장의식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의 사진, 한국인의 독일 경유 입북 알선, 북한으로 부터의 공작금 수수 등 누가 봐도 북한 간첩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으니 북한독재 타도나 북한 민주화를 말할 턱이 없었을 것이다. 그 무엇도 아니다. 과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권타도와 민주화를 외쳐온 진좌 본심은 북한 김일성·김정일체제를 지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북한 민주화에는 침묵을 계속해 온 한국의 이른바 민주화세력이나 재외민주화인사들은 지금 중대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민주화는 말하지 않고 아니 '말할 수 없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이란 비극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희극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에 이어 최근 한국에서는 '반전·평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설마 이것까지 북한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北韓

김남룡 북한연구소 전문위원 번역